

통일을 말하다

먼저 온 통일

희망을 꿈꾸다

소식을 전하다

즐거움을 만나다

공감을 나누다



### 2014년 우리의 통일노력과 2015년의 과제

2014년은 통일대박의 화두와 함께 시작되어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결집시키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의 화두를 꺼낸...



2014년 우리의 통일노력과 2015년의 과제



통일의 마중물이 될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분단 70년의 한반도, 통일로 '부활'을 꿈꾸다!



민주평통 '2014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통일을 말하다

① ② ③

포커스

2014년 우리의 통일노력과 2015년의 과제



2014년은 통일대박의 화두와 함께 시작되어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

+ 더보기

먼저 온 통일

①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결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북한이탈주민 남한 정착 위해 노력



올 한 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기 때문 ...

+ 더보기

희망을 꿈꾸다

① ② ③

또 다른 시선

20년간 지켜온 정책의 일관성이 독일통일의 밑거름



소식을 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민주평통 '2014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통일시대



웹진다운로드



지나호보기

웹툰

통일한국의 'SEROUN호' 타고 유럽을 누비다!



이벤트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통일대박'일 것이다. 2014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주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이미 ...

+ 더보기

## 즐거움을 만나다 ①②

### 통일레시피

술자리 많은 연말 연초, 속풀이에 좋은 황해도 바스레기두부탕



바스레기두부탕은 황해도 해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바스레기'와 함께 두부와 채소를 넣고 끓여낸 탕으로 여기서 말하는 바스레기는 바지락을 일컫는 북한말이다. 북에서도 겨울철이 되면 제철을 맞은 ...

+ 더보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월 4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서울 종로동 소재)에서 국내외 운영·상임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 더보기

## 공감을 나누다 ①②

### e-행복한 통일 2014 결산①

독자들이 뽑은 'e-행복한 통일' 최고의 기사



올해 'e-행복한통일'은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실시로 '먼저온 통일'섹션을 신설했고,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다양한 IT기기에 적용되는 반응형 배너 선보이는 등 독자들이 지적하신 불편사항들을 ...

+ 더보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







## 2014년 우리의 통일노력과 2015년의 과제

박종철 박사 (통일연구원)

### 2014년 \_ 통일대박과 통일준비 노력

2014년은 통일대박의 화두와 함께 시작되어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의 화두를 꺼낸 뒤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여 통일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기조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발표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과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인도적 지원과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문(2014. 2. 25)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민생인프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 등 3대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준비론은 기존의 대북통일정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외교, 안보를 망라하는 국정기조이며 종합적 국가전략이다. 둘째, 통일준비를 위해 대북차원과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과제가 균등하게 망라되었다. 셋째,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동질성 증진과 공존을 지향하는 것과 함께 통일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을 중시한다.



넷째, 통일준비론은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일목표 달성 및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재조정하였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민생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준비론은 기존의 대북·통일정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외교, 안보를 망라하는 국정기조이며 종합적 국가전략이다. 둘째, 통일준비를 위해 대북차원과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과제가 균등하게 망라되었다. 셋째,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동질성 증진과 공존을 지향하는 것과 함께 통일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을 중시한다. 넷째, 통일준비론은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일목표 달성 및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재조정하였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민생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014년 2월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출범(2014. 7.)이후 세 차례 전체회의(1차 8.7; 2차 10.13; 3차 12.2)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비전 및 청사진 제시, 생활밀착형 대북정책 인프라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 및 한반도중단철도 연계방안, 다자경제협력방안,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문화행사,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 통일현장 제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방안, 통일 공공외교활성화 방안,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첫 해인 2013년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되었다.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는 분단관리와 평화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통일외교를 지향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한독정상회담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정상회담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북한 비핵화, 통일준비 등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북한핵·인권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 2015년\_국민적 통일운동의 활성화

향후 국내 차원에서 통일준비의 우선적 과제는 통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지향적이고 통일친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통일의 혜택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통일 비용은 단기적이며, 분단비용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지의 결집을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확대하고 각종 포럼을 운영하여 통일담론이 피부에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미래 세대의 통일의를 고양해야 한다. 미래세대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통일세대이다. 미래 세대의 통일의를 고양하기 위해 균형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통일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는 세계화, 정보화, 탈민족국가의 세계적 조류의 영향으로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지 않고, 통일후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염려한다.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통일의 이유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통일의를 고양해야 한다. 미래세대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통일한국에서 살아갈 통일세대이다. 미래 세대의 통일의를 고양하기 위해 균형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통일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 및 청년 세대는 세계화, 정보화, 탈민족국가의 세계적 조류의 영향으로 통일을 당위적으로 여기지 않고, 통일후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염려한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공감할만한 통일의 이유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에게 통일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이 있으며, 통일한국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청년세대의 관심사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각자 생활주변에서 통일운동을 구체화하는 국민참여형 통일운동과 생활밀착형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자의 거주 지역과 세대별로 통일미래상 및 관심사항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성과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통일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북한의 시·군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양측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북한지역의 현장 실태에 적합한 맞춤형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또한 청년세대의 통일의를 고양하고 통일비전을 구체화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관심분야별로 통일운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통일한국의 'SEROUN호' 타고 유럽을 누비다!

이택중



아 진짜! 글쎄! 장글애 팀이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대요. 그래서 장글애가 러시아까지 '새로운(SEROUN)호' 타고 간다잖아요!



설마요. 장글애씨가요!?



그렇다니까요!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사업이라면 통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의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글로벌 에너지 사업이요? 심지어 '새로운'호라면 통일 한국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잇는 전 세계 유일의 고속열차잖아요?



그렇게요. 통일한국의 새로운 열차란 의미로 '새로운(SEROUN)'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요새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해외 관광객들도 몰려서 승차권 판매시작과 함께 매진이라 돈 주고도 못 구한다잖아요. 아, 난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기차 한 번 타보는게 소원인데...



여기에 모두 계셨네요?

오, 나의 동기! 사랑하는 동기, 새로운호 탄다며?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시간의 기록, 북한의 달력을 마주하다

이 지 순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발명 중 하나는 달력이다. 달력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일', '주', '월', '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달력은 세월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는 셈이다. 우리의 속담에 '단오선물은 부채요, 동지선물은 책력이다'란 말이 있듯이, 연말에 주고받는 가장 보편적인 선물이 달력일 것이다.



### 분단 70년, 달력을 통해 엿보는 북한의 요즘 생활상

분단 70년이 되어가는 오늘날, 북한의 달력은 어떤 모습일까? 경직된 북한 사회를 떠올리면 딱딱한 구호를 곁들인 선전문구나 김일성·김정일 이상화를 위한 그림들로 가득 찬 것은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우선 들 수 있다. 이 생각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풍경, 정물, 예술문화인, 어린이 등으로 가득한 북한 달력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타일처럼 굳어진 북한 고유의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선 새해가 되기 전에 북한 주민들은 한 장에 12달이 모두 들어가 있는 '포스터 달력' 형태의 연력을 인민반에서 배급받는다. 여타의 달력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였던 문구는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바뀐 채 연력의 상단을 채운다. 어떤 연력은 이 문장의 영어 표현이 부기되기도 한다. 연력 화보는 북한의 주요 이슈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연력에 미사일과 인공위성, 김정은 사인을 배치한 디자인은 유다르게 주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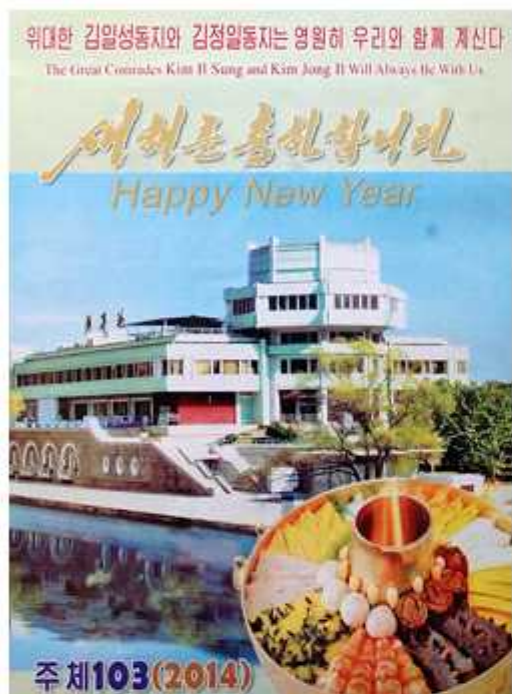


▲ 북한 고유의 모습을 담은 달력



## 출판사에 따라 달력도 천차만별, 태교에 좋은 아기 달력이 인기!

연력 외의 벽걸이 달력은 소속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얻을 수 있다. 벽걸이 달력은 달력 발행 출판사에 따라 다채로운 화보를 보여준다. 출판사 성격과 목적에 따라 화보의 내용도 다른 편이다.



▲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현실과 대조되는 산해진미가 들어간 달력

공업출판사는 강선의 노동자들, 삼일포특산물공장의 일꾼들, 2.8직동 청년 탄광현장, 수력발전설비 생산현장 등으로 구성했던 2010년 달력처럼 대개 산업현장이나 노동자들을 화보로 내보낸다. 인민보건사는 갈비찜, 약밥, 달래김치, 메기탕, 감자떡, 토끼고기보양찜, 송편 등 온갖 산해진미가 들어간 달력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달력은 보기만 해도 절로 침이 고일 정도로 다채로운 음식의 향연을 보여준다. 만성 식량부족에 시달린다고 알려진 북한의 현실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금성청년출판사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사답게 북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달력화보를 편집하고 있으며, 체육출판사는 북한의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대상으로 한 달력을 발행하기도 한다. 또한 2.16예술교육출판사는 미술 작품들을 화보로 구성하여 달력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문학예술출판사나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등은 '텔레비죤연속극'이나 '예술영화'의 중요 장면, 배우들을 편집하여 달력 화보로 채운다. 배우나 가수, 체육인들이 나오는 달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북한 여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정물 화보가 들어간 달력으로 책 표지를 장식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평양출판사는 일반적으로 정물 화보로 달력을 채운다. 도자기, 과일, 꽃, 풍경 등 해마다 정물 대상이 달라지는 편이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달력으로는 외국문출판사에서 발행한 2006년 달력이다. 이 달력은 1980년대 초까지 개최되었던 남한의 '우량아 선발대회'처럼 포동하고 귀여운 아기들을 담고 있다. 이 시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였던 현실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 달력 속 같은 듯 다른 남북한의 공휴일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평양출판사가 발행한 최근의 달력 표지를 보면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래에 "Happy New Year!"가 부기되어 있다. 달, 요일, 기념일 등 모든 것에도 영문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대외 교류용으로 해외에 배포되는 달력 대개가 영문 표기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새해의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헤아리는 것이 공휴일일 것이다.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의 수에 따라 사람들은 일희일비하곤 한다. 새해의 달력을 보며 명절연휴와 법정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섞인 '황금연휴'가 언제인지 보는 것은 즐거운 기쁨이 된다. 각국의 공휴일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달력은 국가명절, 민속명절, 기념일 등을 표시한다. 공휴일이 아닐지라도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중요 기념일의 경우 그 달의 상단에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명시해 둔다. 붉은 글씨로 표기되는 공휴일 가운데 김일성 생일(태양절 4.15)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2.16)은 붉은 색 숫자에 다시 붉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 북한이 그 날을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이자 명절로 강조함을 알 수 있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1948년 9월 9일 제정된 이래로 변하지 않고 있다. 국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기 상단에는 7개의 별이 있고, 국기 하단에는 7개의 별이 있다. 국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기 상단에는 7개의 별이 있고, 국기 하단에는 7개의 별이 있다. 국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기 상단에는 7개의 별이 있고, 국기 하단에는 7개의 별이 있다.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김일성 생일(태양절)은 일반 공휴일과 다르게 강조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 구정·추석 등 민속 명절은 같아**

우리와 북한이 한 민족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역시 민속 명절이다.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쇠던 북한은 1989년부터 음력설을 부활시키고 공휴일로도 지정하였다. 북한은 추석과 함께 정월대보름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수리날이라고 부르는 단오 또한 공휴일로 지정된 민속명절이었지만 2005년부터는 제외되었다.

이 외에 북한의 법정공휴일은 국제부녀절(3.8), 청명(4.5), 조선인민군창건일(4.25), 국제노동절(5.1), 조선소년단창립절(6.6), 조국해방전쟁기념일(7.27), 해방절(8.15), 선군절(8.25), 공화국수립기념일(9.9), 당창건기념일(10.10), 헌법절(12.27) 등이다. 이 중에서 조선소년단창립절은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선군절은 2013년엔 일요일이어서 공휴일 여부를 알 수 없지만 2014년 달력에선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빨간 날짜'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말의 관심사는 2015년에 김정은 생일인 1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명절로 격상할지의 여부였다. 2015년 북한 달력을 보면 김정은 생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월대보름과 김정일의 당사업개시일(6.19), 어머니날(11.16)이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하는 북한이 정월대보름날(2015년에는 3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새롭다.

새털같이 많은 나날이라고 생각한 게 엇그제 같은데, 2014년의 끝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는 심경은 '시간이 참 빠르다'이다. 한 해의 달력을 책장 넘기듯 넘기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난다. 새해의 달력을 보며 느꼈던 미래는 어느새 과거가 되었다. 지금 여기, 바로 현재는 또다시 과거로 흘러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화되는 미래 속에서 있는 셈이다.

북한의 달력처럼 "새해를 축하합니다. Happy New Year!"라는 인사를 곁들여 남북한이 함께 2015년 미래를 꿈꾸는 것도 즐거운 것이다.



## 통일의 마중물이 될 '통일맛이 하나-다섯운동'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북한이탈주민 남한정착 위해 노력



올 한 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맛이 하나-다섯운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기 때문. 그전에도 자문위원들은 해당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장학금이나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지만, 2013년 11월 민주평통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평통 운영 상임위원과의 대화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을 위해 민주평통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함에 따라 민주평통은 올해 '통일맛이 하나-다섯운동'을 본격 추진해 왔다.

통일맛이 하나다섯운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통일시대 기반 구축 강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운동으로, 국민과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이 '하나'가 되어 '다섯'종류의 지원활동(탈북청소년 멘토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장학지원, 취업지원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주평통은 '통일맛이 하나-다섯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역협의회는 경우 75%에 이르는 171개 협의회가 관내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구, 충남 지역협의회도 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한해 민주평통 사무처와 자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정리해보았다.

### 520명 자문위원, 탈북청소년들의 멘토가 되다!

#### 어깨동무 멘토링사업

'어깨동무 멘토링사업'은 멘토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멘토링 역량강화 아카데미에서부터 출발했다. 민주평통은 4월 21~22일,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 대상 멘토링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어 멘토-멘티 결연식과 멘토-멘티 여름방학캠프를 추진했는데, 멘토-멘티 결연식은 5~7월 16개 시·도에서 멘토 520명, 멘티 324명이 참가했다. 멘토-멘티 여름방학 캠프는 7~9월에 걸쳐 16회 실시됐으며 총 837명이 참여했다. 또한 학습지원 및 진로 고충상담, 생활지원, 문화현장체험 및 여행, 가족만남 등 총 544회의 멘토링이 이뤄졌다.





## 법률전문상담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도모한

법률지원

법률지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브로커, 채무상담, 가족관련 상담 등을 지원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으로, 김민성·김태경(서울 강동), 김웅기(관악), 양진아(서초)변호사가 브로커, 명의도용, 이혼, 자녀입적, 채무상환 문제 등을 상담해줬다. 또한 대전 유성구에서는 심재필 변호사가 지입차 계약문제 상담봉사를, 경북 영천시에서는 김섭 변호사가 자체 법률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자문을 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지원단 홍보 및 법률교육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남한 땅에서는 탈북민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의료지원

민주평통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은 두리하나 국제학교와 우리들학교, 삼정학교 등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와 북한이탈주민 사랑협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건강 검진 및 진료를 실시했으며, 구급의약품 키트 1만 개를 확보해 건강검진 참가자와 학교 및 기관에 무료로 나눠줬다.



또한 각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의료기관간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검진, 출산, 치과진료, 한약제공 등의 의료지원을 추진했다. 서울 은평구와 부산 서구협의회는 탈북 여성 출산지원을, 서울 중랑구협의회와 서울 도봉구, 경북 영천시, 경남 함안군협의회는 의료비 및 의약품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대구 서구, 수성구, 경기 부천시, 강원 횡성군협의회 등은 무료건강검진을, 서울 성동구, 서울 양천구협의회는 치과 진료비를, 경남 거제시협의회는 한방진료를 각각 지원했다.

[의료지원 기사 보기 : 1차 >>](#)

[의료지원 기사 보기 : 2차 >>](#)

[의료지원 기사 보기 : 3차 >>](#)



##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공을 위한

### 취업지원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인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주평통 취업지원단(단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을 발족했다.

취업지원단과 지역협의회의 활동으로 현재 44개의 탈북민 고용희망 기업체를 발굴했고 1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됐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지역협의회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발굴을 확대하고 멘토링 결연 등을 통해 이미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지원 우수사례 기사 보기 >>](#)





##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된 리더 양성을 위한

### 장학지원

민주평통은 3월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탈북청소년 장학사업을 추진해왔다.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은 7월 7일 50명의 학생에게 각 300만 원씩 총 1억천만 원의 학업장려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8월에는 장학금 수혜자 대상 '제1회 통일공감마당'을 개최해 통일강연 및 취업특강을 실시했다. 아울러 6명의 지도교수단을 구성해 장학금 수혜자의 진로상담과 멘토링을 전담토록 했으며 렛츠런재단과 공동으로 '드림진로 프로젝트'(진로, 취업지원)를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두리하나국제학교의 탈북청소년 기초 한글교실 캠프, 여명학교의 탈북청소년 진로탐색 지도 및 드림장학금,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직업진로교육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으로 총 5천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32개 지역회의 및 협의회가 통일 사업, 정기회의, 멘토링 등을 통해 51회에 걸쳐 약 4천만 원을 13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했다. 앞으로도 민주평통은 취업과 직접 관련된 진학예정자 및 전공자들을 우선 지원하고 통일준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장학지원 기사 보기 »](#)

## 의료지원단, 탈북성인들을 위한 무료검진 실시

"추위 많이 타시나요?"

"등이 시려워 가지고 여름에도 항상 조그마한 전기요를 틀고 자요. 허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관절염약도 먹고 있어요."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11월 26일(수)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 사랑협의회' 훈련생과 교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의료봉사단은 그동안 탈북청소년대안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세 차례 무료검진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성인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치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 등 종합검진과 진료가 이뤄졌으며 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들도 안과검진 및 안경지원활동을 펼쳤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류지열 이사장에게 가정용상비약 9종이 담긴 구급약 키트와 치료용품을 전달했다. 류회장은 “탈북과정도 힘들었고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맞게 돼서 매우 유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검진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날 의료진에게 다양한 통증을 호소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을 때 머리를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 항상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아프고, 숲진 곳(산간지역)에서 동원생활을 하다 보니 관절이 약해졌다”며 검진을 요청했다. 간호부서에서는 이날 전신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사하고, 위장약과 피부질환약, 파스 등 여러 가지 약제를 제공했다. 한방진료를 맡은 윤영진 자문위원(경희궁의봄 한의원장)도 “학생 때와 달리 오늘 오신 어른들은 거의 다 실제로 아프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철수 의료봉사단장은 “성인병을 가진 분들도 많고, 금방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며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수술지원도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도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에서 검진 받을 수 있어 수혜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이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룹 '부활'이 새로 발표한 노래 'To Be One(하나가 되어)'을 처음 들었을 때, 독일 출신 록그룹 스킨피언스의 명곡 'Wind of Change'가 떠올랐다.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와 함께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옛 소련에 부는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이 노래에 가슴 설레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To Be One'에도 금세 빠져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To Be One' 남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 되길

'To Be One'의 뮤직비디오에는 억압의 사슬을 끊고 남한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해변 위를 뛰어다니는 꿈결 같은 장면이 나온다. 부활의 새로운 보컬 김동명의 음성은 이른 봄 얼음 아래를 흐르는 물소리처럼 청명하고 아련하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테너 안세권, 청춘합창단의 하모니는 통일을 향한 장중한 울림으로 오래 각인된다.



'To Be One'은 부활의 세 번째 '통일 노래'다. 리더 김태원 씨는 10년 전인 1994년 부활 4집앨범을 통해 '244! 저무는 날의 끝' 곡을 발표했고 2002년 8집 앨범 '새벽'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앞두고, 또 그룹 부활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세 번째 통일염원의 노래가 바로 'To Be One'이다.



무려 7개월의 작곡 기간을 거쳐 완성된 이 곡은 '한반도 부활프로젝트 70'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발표됐다. '한반도 부활프로젝트 70'은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내년, 분단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통일의 날을 맞이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69일간 준비해서 70일째 노래를 발표한다는 뜻도 함께 담았다.



## 부활 30년, 매 순간이 위기이자 희열이었다

그룹 부활의 30년 여정은 한반도 분단 70년의 굴곡진 현대사와 닮아 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에게 3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그는 “30년이 늘 위기이자 희열이었고, 매 순간 행복했으며 또 매순간 고독했다”고 답했다. 그는 “때론 정상에서,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혼적조차 없어질 만큼 부스러질 때도 있었다”며 “30년 간 수없이 무너졌다 일어나고 다시 또 무너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항상 기로에 서 있었지만, 누군가가 부활의 음악을 들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활은 그룹명에 걸맞게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다시 태어났다. ‘희야’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사랑할수록’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명성을 이어나갔고, 2000년대에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시 부활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해 보컬 정동하의 탈퇴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김동명의 영입으로 또 다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도 마찬가지지요. 70년간 상처받고 통일을 향한 의지가 수없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게 바로 음악을 통해 가능하다고 봐요. 그룹 부활의 이름처럼 휴전선을 건너내고 통일된 한반도가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 ‘문화의 힘’이 북한의 변화 가져올 것



김태원 씨의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 아니다. 사람들끼리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소울’의 통일이다. 마음속에 내재된 편견의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시작, 모든 차별을 해소하는 일일 수도 있다. 다만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통일은 남북통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는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문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맥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태원 씨는 음악이, 문화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11월 EBS 청춘 토크 콘서트 ‘통일드림’에 패널로 같이 출연했던 탈북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 씨가 북한에서 부활의 음악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2002년도에 이승철 씨와 함께 했던 공연라이브 실황 뮤직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우리

음악을 듣는다는 거지요. 음악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매체를 타고 북한에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일의 큰 가능성을 봤어요.”





## 🥁 “치유를 위해 상처를 짚는 아픔쯤은 감수할 수 있잖아요”

통일비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김태원 씨는 '상처'와 '수술'에 비유했다.

“우리 몸 어딘가가 아파서 상처를 짚 내는 수술이 필요할 때, 그 아픔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금방 아물 수 있잖아요 일단 도려내고 봉합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기다리면 돼요. 그 아무는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돼요.”

통일을 이루어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합을 이뤄내면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는데도, 당장의 혼란과 비용 때문에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다.



김태원 씨는 어떤 거대하고 굵은 손이 있어 그 손이 남북한 통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얇은 손을 가진 '우리'라도 사람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통일을 염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걸 하겠다고 했다.

“모든 계획은 분단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To Be One은 내년에 더 많이 들려질 겁니다. 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원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1989년 모스크바 평화음악축제에서 스콜피언스가 26만 명의 관중 앞에서 'Wind of Change'를 열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만들었듯이, 내년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세계무대에서 이 노래의 합창이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보았다. '고르키공원'이 아닌 'DMZ 세계평화공원' 근처를 걸으며, 변화의 바람을 음미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글. 기자회견 / 사진. 부활엔터테인먼트 제공>





## 20년간 지켜온 정책의 일관성이 독일통일의 밑거름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 독일 대사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통일대박'일 것이다. 2014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주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이미 성공적인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독일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e-행복한통일'에서는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를 만나 독일 통일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들어보았다.

### Q 한국사람 & 한국문화, 어떻게 보시나요?

2년 반 정도 한국에 와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친절합니다. 또 다이내믹 하지요. 한국 사회는 질서정연하고, 전반적인 인프라가 현대적으로 잘 구축돼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도 좋고요.



나라 밖에서 보자면, 아시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비단 K-POP 가수들 뿐 아니라 한국 뮤지션들은 실력이 뛰어납니다. 독일 음악대학을 가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독일인들도 한국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도 입에 잘 맞아요. 갈비나 불고기, 탕찌개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길거리 음식도 아주 다양하고 맛있어요. 품질이나 위생 등에 있어 안심할 수 있고요. 대사 임기가 끝나고 독일에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 Q 베를린장벽 붕괴 25주년, 지금 독일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통일 이전에 서독과 동독 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통일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들을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해야만 했고, 이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첫 15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강대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독일 사회분위기에서도 감지돼요. 행복해 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여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이완돼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느끼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랜 시간 상이한 환경에서 분단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때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월드컵은 통일된 독일에서 열린 첫 번째 큰 파티였어요. 함께 독일을 응원하고 월드컵을 즐기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가 진정으로 다가온 거죠. 이제 아무도 동독과 서독이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는 데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 모두 동독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동독과 서독이 합쳐졌을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어요.

## Q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순간, 어땠나요?

유포리아(euphoria, 진짜 큰 행복감)를 느꼈어요. 베를린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만큼은 원래 통일을 원했던 사람들도,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지요. 특히 자유가 없던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동서독 간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또 독일 뿐만 아니라, 냉전의 장막이 걷히면서 유럽전체가 통일되는 느낌을 받았지요. 양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그 많은 무기들도 사라졌고요.

하지만 통일 직후, 구 동독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그러나 2003년에 '아젠다 2010'이 만들어지면서 통일된 독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현재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은 통일 당시의 그 행복한 느낌을 다시 느끼게 됐고, 희망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Q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남북한과 동서독의 경우 외부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것은 같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가장 큰 차이는 동서독의 경우 전쟁이 없었지만 남북한 간에는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또 동독은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소련군의 철수와 맞물려 있어서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독 주민들은 동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서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아직도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독일의 통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점들이 있고,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독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이 이니셔티브 쥐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20년 간 일관되게 신동방정책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서독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긴장완화 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양대 국민정당, 다른 정치 세력들 간에 찬반 논란이 거셌지만 당시 서독 주민들은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사민당에 표를 몰아줘서 압승을 했고 신동방정책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에 대한 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Q 한반도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한이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과 드레스덴 선언 등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독일도 이를 조력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 통합을 점진적으로 잘 이루길 바라며, 2015년은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인 통일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언제든지 북한에 손을 내밀고,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핵무기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요.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든 비즈니스적으로든 북한을 향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 기자회견 / 사진. 나병필,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제공>

#### 마파엘 대사는?

하이델베르크대와 베를린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만하임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1985년 독일 외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나토 상설대표부, 유럽국 담당관 등을 거쳐 2012년 7월 주한 독일대사로 부임했다.





남한에서는 데이트비용이나 술값을 두고 '누가 낼 것인가' 가끔 눈치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웃나라를 보면 중국인들의 경우 더치페이를 선호하지 않고, 일본인들은 각자 내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어떨까? 이번호에서는 더치페이가 낯설다는 탈북여고생, 그리고 군대 복역 중 탈북해 남한에서 '3년 석기(아래 기사 참조)'를 했다는 탈북청년을 만나보았다.

### 💰 이해할 수 없는 남한의 '더치페이'

1년 전 남한에 온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활발한 성격 덕분에 학기 초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여섯 명이 우르르 함께 몰려다녔는데 어느 날, 다 같이 매점에 가게 됐다. 남한에서 한 살 나이를 낮춰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A양은 실제 '친구'라기 보다는 '언니'였다. A양은 동생뻘 되는 친구들에게 빵을 사서 나눠 주었고, 친구들은 A양이 왜 빵을 사주는 지는 몰랐지만 "고마워, 잘 먹을게"하고 맛있게 빵을 먹었다.

며칠 뒤 또 다시 매점에 가게 된 A양과 친구들. 친구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사는가 싶더니, 달랑 제 것 한 개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명이 돈 있으면 친구들 사주고, 다음에는 다른 애가 돈 있으면 또 개가 다 사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섯 명이 같이 매점에 갔다가 자기 혼자만 먹는 거예요. 물론 학생이다 보니 여러 명 것을 다 사줄 돈이 없었지만, 좀 이기적이란 생각을 했어요."

탈북대학생 B도 이 이야기에 공감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친해진 학과 동기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B씨가 밥값을 계산했더니 이상하게 보더라는 것.



“애들이 왜 저보고 계산하냐고 묻더라고요. ‘형이니까 계산하지’라고 말했더니 여기서도 안 그런대요. 더치 페이를 한대요. 저는 그래도 애들에게 가끔적이면 밥을 계속 사줬어요. 그때는 정착금도 있었고 자격증 보 조금도 있어서 수중에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되겠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내기로 했죠.”



## 3년 석기, ‘니들이 군대를 알아?’

탈북대학생인 B는 이제 막 군입대를 앞둔 남자 학우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가 들려주는 북한 군대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어 한다고. B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지 5년 만에 휴가를 나왔다가 탈북해 남한으로 왔다.

“5년간 군복무 했다고 하니깐, 애들이 2년도 긴데 어떻게 5년을 있었냐며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넨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휴가도 자주 나오더만. 난 5년 만에 집에 딱 한 번 가 봤어. 편지를 쓰면 집에 가는데 6개월이 걸리고, 오는데 6개월이 걸려. 니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편지를 받아봤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B학생은 군대에서 3개월간 감자만 먹으며 살았던 이야기, 소똥을 물에 헹겨 옥수수알만 건져 먹은 이야기, 개 구리나 뱀, 쥐 등을 잡아먹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남자 학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들이 쥐 맛을 알아? 너네는 행운이라고 생각해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슬금슬금 자신을 경계하며 피하는 친구들이 눈에 띈 것.

“북한 군인은 손가락만 가지고도 사람을 죽인다고 들었 다면서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소리냐고, ‘내가 니들을 왜 죽여?’라고 말해줬어요.”

B학생은 ‘3년 석기 극복기’도 들려줬다. ‘3년 석기’라는 말은 ‘군인티’와 비슷한 뜻의 북한말이다. 군대를 10년 다녀오고 제대하면 3년간은 군대에서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뜻인데, B학생도 남한에 와서 한동안 이 ‘3년 석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한다.

“학교 선배들이라고 해봐야, 저보다 다섯 살이나 어렸거든요.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데, 너무 어리니까 제가 인사도 잘 안했어요. 그때는 군대 성격이 남아있어서 마깝지(마땅하지) 않으면 확 패버린다, 확 받아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석기’였죠. 지금은 안 그래요. 180도 달라졌어요.”



## 겨울에 스키 타러가는 게 너무 좋아요

북한의 겨울은 매년 너무 일찍 찾아오고, 영하 40°C가 넘는 무시무시한 한파를 뿌려대며 주민들을 괴롭힌다. 따뜻한 물을 쓰려면 가마에 불을 지펴야 하고, 물을 지피려면 땀감이 있어야 하는데 나무나 석탄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남한에 와서 뭐가 제일 맘에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나오고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쿵쿵 나오는 게 가장 신기했다’고 말하는 탈북청소년들이 있을 정도.



“북한의 산에는 너도나도 다 베어가서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벗짚이나 담뱃대, 강넛대 (옥수수대) 같은 것을 베어다가 말려서 물을 때요. 전기장판이 있는 집도 있지만, 전기가 안 들어 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기말시험 준비 때문에 한창 바빴던 B학생에게, 겨울방학이 되면 무얼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스키장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다.

“스키장이 너무 좋아요. 작년에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외발기, 쪽발기(수제 썰매) 만들어서 타는데, 여기는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이 있잖아요.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글. 기자회견>



## 민주평통 '2014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2015년 통일·대북정책 방향 건의 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월 4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서울 흥은동 소재)에서 국내외 운영·상임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의해 개최되는 법정회의로, 민주평통 핵심 간부위원인 운영위원, 상임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4년 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자리다.

'북한인권'을 주요의제로 설정해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현 수석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정책' 보고와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통일준비 활동방향'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북한인권 제형 발표, 제16기 민주평통 활동 보고, 정책건의안 채택, '북한인권보장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이제 북한인권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4대 기조중 하나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전면에 내세웠고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장정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도발, 협상,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비정상적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권 회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은 우리의 문제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뜻을 함께 모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최전방,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특히 운영·상임위원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 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인도적 지원, 인권개선 추진할 것”



▲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주 수석은 민주평통이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과 생활밀착형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통일은 도약의 기회이자 아시아와 전세계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정부와 국민, 해외를 잇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일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주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실천적 통일준비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해나갈 것”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평통 활동방향 보고’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일준비 본격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평통의 능동적·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자문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6대추진과제로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통일정책 여론수렴 활동 강화, 국민통일역량결집을 위한 작은 통일운동 전개, 통일준비위원회와 상생적 협업관계 구축, 제17기 통일자문회의의 구성 개선, 사무처 역량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찬봉 사무처장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건의안 채택



▲ 김영철 기획법제위원장

이어 이번 회의의 핵심 사안인 정책건의안 채택이 있었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건의안은 10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450여 명의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11.3~10), 의견을 모은 것으로, 여기에 지난 11월 28~30일에 실시된 국민통일여론조사(국민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김영철 기획법제위원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의 재확인과 ‘드레스덴 구상’ 본격 실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축적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주도 ▲

창의적 북핵 해법 모색 ▲내실 있는 통일준비 가속화 등을 제안했다.

## ‘북한인권보장촉구결의안’ 채택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운영·상임위원들은 제성호 인도지원인권위원장의 설명과 함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모으기 위해 ‘북한인권보장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합동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국내외,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 그것이 통일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 정책건의안을 의장께 보고드려 내년도 대북정책에 반영 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 중간에 북한인권 체험발표 시간이 있었다. 2010년에 탈북한 김강남(가명, 탈북민) 학생은 어린 적 고아원과 학교에서의 열악한 생활과 학대, 그리고 탈북 실패 후 보위부에 끌려가서 당한 구타와 폭행의 경험들을 이야기했다. 김강남 학생은 그 후 “남한으로 와서 경찰이라는 꿈을 갖게 됐다”며, “약자의 편에서 사랑을 주고 나눔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당일 부대행사로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NAUH(Now, Action & Unit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장마당 모습을 재현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 ‘북한인권’ 중요성 공감한 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

다루스만 北인권보고관, ‘남북통일 위해 북한인권 해결’ 강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가 마침내 북한인권문제의 진실을 찾아내는데 승리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북한 인권개선은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마르주끼 다루스만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연 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월 10~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민주평통 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현경대 수석부 의장과 승은호 아세안부의장 등 간부위원, 아시아·유럽 지역 여성 자문위원 100여 명, 조태영 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경대 수석부 의장의 기조강연과 마르주끼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강연이 있었으며, 각 협의회별로 여성활동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유엔안보리 회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인권 현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강연을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지금이 결정적 시기이며, 국제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 다루스만

“유엔의 결의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인권대화를  
진행해 북한 인권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북한주민의 식량권 문제와 정치범수용소, 당국의 비인간적 만행, 고문과 근거 없는 체포 및 구금, 즉결 처형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유엔의 결의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인권대화를 진행해 북한 인권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 허가 하에 서울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통일은 인권통일’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 4일 개최된 운영상임위 합동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확고히 지지하고 2만여 자문위원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간적인 삶, 순조로운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우리 국민의 북한 인권 회복 의지가 머지않아 남북 인권통일로 결실이 맺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2014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전국 결선대회 MBC '히스토리 워' 녹화현장을 가다

최종 5라운드 결선에 오른 8명의 학생들이 상기된 얼굴로 마지막 문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홍규 학생과 이동혁 학생이 125점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 드디어 문제가 출제되었다. "구르는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거의 굴뚝 연기는 반공에..." 뻘- 문제가 다 출제되기도 전에 갑자기 부저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전성우 학생에게로 쏠렸다. 성우는 가볍게 '화륵거'라고 정답을 맞췄다. 축포 소리가 귀를 울렸고 스튜디오는 오색 색종이 가루로 뒤덮였다. 이날 최종 승자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된 전성우 학생(부산 동현중 2)이었다.

### 달라진 역사·통일 퀴즈쇼, 순발력도 중요

민주평통은 11월 22일(토) MBC 일산 드림센터 공개홀에서 중학생퀴즈왕대회 결선대회인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쇼, 히스토리 워(History War)'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시·도 예선대회 입상학생 8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김성경 아나운서와 방송인 문희준 씨가 진행을 맡았다.



▲ 스피드 퀴즈대결  
◀ MC를 맡은 김성경 아나운서와 방송인 문희준

올해 대회 진행방식은 지난해와 달리, 80명의 학생 도전자들 가운데 1라운드에서 스피드 퀴즈를 통해 16명을 가려내고 2~3라운드에서 연예인들과 함께 버라이어티 방식으로 퀴즈배틀에 참가, 총 4인을 선발했다. 이어 패자부활전을 통해 4인을 더 선발한 뒤 여덟명이 최종라운드에서 대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1라운드는 개인전으로 10명씩 8개 그룹을 선정해 각각 스피드 퀴즈 대결을 펼쳤으며 빨리 부저를 눌러 정답을 맞춘 두 명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관련 문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참가한 첫번째 박람회 명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고 순식간에 두 진출자가 가려졌다. 아쉬워하는 8명의 학생들에게 MC 문희준



은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며 격려했다. 이어 남북한문화와 용어 스펠링을 맞추는 문제, 북한말, 근현대사, 문화재 관련 문제가 출제됐고 2라운드에 진출할 학생들이 속속 가려졌다. 다만 워낙 순발력을 요하는 상황이다보니 부저를 빨리 눌러야 한다는 압박감에 긴장을 많이 한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 연예인들과 함께 버라이어티로 진행된 2~3라운드

최정예요원 16명이 전부 결정되자 색깔공 추첨을 통해 4명씩 4팀이 선정됐고,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을 도와줄 네 명의 연예인들이 등장했다. 우선 방송인 천정명팀(빨강색)에는 최현욱, 이홍규, 이동혁, 이지원 학생이, 여성 아이들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팀(노랑색)에는 김성현, 박인혜, 전용빈, 하재빈 학생이, 남성 아이들그룹 틴탑의 천지가 이끄는 팀(회색)에는 이상화, 문승준, 전왕주, 유종진 학생 등이, 개그우먼 신봉선이 이끄는 팀(초록색)은 박민지, 이효지, 강종철, 홍성혁 학생 등이 배정됐다.

퀴즈배틀 시작 전 미로는 걸그룹 퀴즈쇼에서 우수한 실력을 자랑하며 당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겠다고 다짐했고 신봉선은 "축이 좋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부저를 누르고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천명훈은 스스로를 '아이들계의 고조할아버지'라 부르며 단군 이래 역사를 다 알고 있다고 장담했다.



▲ 미료가 이끄는 노랑팀의 정답

▼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에 대한 설명에 숙연해진 학생들



본 게임에 앞서 네 팀은 먼저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타일 게임을 했다. 100초 안에 타일 모으고 정답을 조합하는 문제로 정답은 독립신문이었으나 자음과 모음타일을 알맞게 가져오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미료팀이 가장 빨리 정답을 맞췄다. 2라운드에서는 총 3문제 중 2문제를 먼저 푸는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주관식으로 빈칸 채우기, 연대기 퀴즈 등의 문제가 출제됐다. 도중에 구한말의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말하는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에 대한 설명이 화면으로 나오자 학생들은 숙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라운드 결과 천명훈팀과 신봉선팀이 다음 과정에 진출했고, 이어진 3라운드에서는 이지원군의 순발력에 힘입어 천명훈팀이 최종 결승에 안착했다.

## 기다리고 기다리던 패자부활전! 최종 4인 진출



드디어 76명의 학생들이 학수고대 기다리던 4라운드, 패자부활전이 열렸다. 주어진 보드에 답을 적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 퀴즈배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종 4인 안에 들어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김성경 MC는 패자부활전에 앞서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려





▲ 패자부활전

면 준비가 잘 돼야 하고, 이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라며 "참가 학생 여러분 최후의 1인까지 앞으로!"를 힘차게 외쳤다.

패자부활전 첫 번째 문제는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이 출제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인 NPT를 묻는 질문으로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 가볍게 문제를 맞췄다. 그러나 문제를 거듭할 수록 탈락자 수가 늘어났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을 묻는 질문까지 해서 절반 가량의 학생이, 국민소득 관련 문제에서 단 10명의 학생들이 남게 됐다. 최종 4인을 결정 지은 것은 고노담화였다. 정답을 맞춘 김동욱 학생(김해 분성중 3)은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밖에 이지희(마산제일여자중 3) 유종진(울산중앙중 3), 전성우(부산동현중 2) 학생이 최종 4인으로 남았다.



▲ 문제를 출제해주신 박찬봉 사무처장

## 학생들도 MC도 최선을 다한 최종 5라운드

패자부활전 4인방과 5라운드에서 격돌한 이들은 천경명팀의 최현욱(대전만년중 1), 이흥규(서울 구산중 3), 이동혁(광명북중 3), 이지원(용인 서천중 1) 학생. 최종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는 시간, 전성우 학생은 지역예선에서도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왔었다고 말했고, 이지희 학생은 역사선생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80cm의 키로 부러움을 산 유종진군은 엄마를 위해 꼭 상을 타겠다고 말했고, '너무 떨린다'는 김동욱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역사왕이 되면 친구들에게 한턱 쏠겠다고 공약(?)했다. 최현욱 학생은 "시험 기간을 포함해 하루 4시간씩 공부하며 준비했다"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고, 의사가 꿈이라는 이동혁 학생은 역사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고 하며 윤봉길 의사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 5라운드 결승전



우승자  
전성우 학생



▲ 오색 색종이 가루로 뒤덮인 스튜디오



▲ 두 MC의 응원전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MC들의 애교 가득한(?) 공연이 있었다. 김성경 MC는 소녀시대를 능가하는 아중마시대의 응원 춤을, 문희준은 HOT 데뷔곡이었던 감쪽한 캔디 엉덩이춤을 선사해 모두를 웃게 했다.

드디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고,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각각 다른 9개의 문제가 출제됐다. 오답을 이야기할 경우 감점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먼저 최현욱 학생이 '우라늄'이라는 정답을 맞춰 110점으로 앞서나갔다. 이



어 유종진 학생은 연달아 답을 맞춰서 125점이 되었고, 누구보다 우승에 대한 기대를 불태웠던 김동욱 학생은 '15호 관리소' 정답을 맞추지 못해 아쉽게도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여덟 번째 문제에서 이흥규 학생이 문제를 맞춰 125점이 되었고, 두 명의 공동 1등을 주시하며 마지막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배점이 큰 마지막 문제는 전성우 학생이 답을 맞췄다.

##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한국 이끌어가는 큰역할 해주길”

전성우 학생을 시상하기 위해 올라온 박찬봉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활동할 때면 우리나라는 이미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며 “향후 통일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성우 학생은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역전극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며 “역사선생님인 담임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성우 학생은 “앞으로 외교관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외국에 알릴 계획이며 지금의 이 역사공부가 그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 결승진출자 8인





## 통일대박이 곧 전통시장 대박!

민주평통, 전통시장서 통일사랑방 좌담회 개최

“견과류로 호두와 땅콩도 사고, 재래김, 통복어도 샀습니다. 깨끗이 잘 돼있네요. 순대도 맛있었고 먹거리 살거리 잘 어우러져서 장 잘 봤습니다.”

“미역, 김 등 여러 가지 많이 샀어. 대형마트에 많이들 가시는데, 전통시장 오면 여기서 사는 맛도 있다 아닙니까? 저렴해서 좋고요.”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는 생활밀착형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전통시장상인들과 함께하는 ‘통일사랑방좌담회’를 개최했다. 통일사랑방좌담회는 12월 2일(화) 전주 남부시장, 5일(금) 수원 지동시장과 강릉 중앙시장, 6일(토) 부산 부전시장에서 각각 열렸으며 시장상인 번영회 회원들과 지역관계자 및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통일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자문위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 수도권지역 통일사랑방 좌담회

12월 5일 경기 영동시장(수원 팔달구 소재) 아트홀에서 열린 ‘통일사랑방 좌담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영동·지동·못골시장 상인 및 민주평통 서울·인천·경기지역 간부 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통일대박이 곧 전통시장 대박으로 이어질 것”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은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민주평통은 통일사랑방 좌담회와 같은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민주평통과 함께 통일준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등 붐을 통해 경제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듯, 통일이 되면 대대적인 건설붐이 일고 이는 통일대한민국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통일이 곧 대한민국의 대박이고 이는 전통시장의 대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좌담회를 준비한 경기지역회의 박해진 부의장은 “재래시장을 들보며 안보통일과 함께 서민경제를 고민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통일과 민생경제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토론 겸 행사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서는 민주평통 관계자와 지역상인 간에 전통시장 살리기, 국민화합, 국민적 통일합의를 두고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상인들은 통일과 경제의 상생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 어느새 장바구니 한 가득, “먹거리 가득한 전통시장 좋아요!”

1시간여 동안의 좌담회를 마치고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운영위원, 서울 인천 경기 지역협의회장 및 자문위원들은 지동시장과 영동시장, 못골시장을 들며 장보기 체험을 했다. 생선과 야채, 건어물, 식료품 등 식재료에서부터 어묵과 계란빵, 봉어빵 등 근것질거리까지 온갖 먹거리가 가득한 시장을 한바퀴 도는 동안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금세 물룩해졌다.







▲홍순평 양주시협의회장

신현숙 경기 이천시협의회장은 “전통시장에서 시금치나 달래, 딱까지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사보니까 너무 좋다”며, 다만 “지금도 비교적 깔끔하긴 하지만, 백화점이나 마트와 경쟁을 하려면 생선 하나도 가끔적 손이 안가도록 깔끔하게 다듬어서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협의회 이해준 자문위원은 “성탄절에 맞게 붉은 색 옷을 시장에서 사 입었는데 정말 싸고 좋아서 오기를 잘한 것 같다”며 웃었다.

홍순평 양주시협의회장은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닭발도 사고 호두와 땅콩, 재래김과 통북어 등 장을 많이 봤다”며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다 많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좌담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원산지표시를 더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부산지역 통일사랑방 좌담회

12월 6일(토)에는 부산지역에서 '민주평통과 부전마켓타운이 함께하는 재래시장 여른수렴 및 통일사랑방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과 이영숙 부산부위원장, 운영위원, 부산지역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시장 측에서는 부전시장 손원호 회장을 비롯한 시장상인회 회장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민주평통과 시장상인들이 남남통일대박을 먼저 만들자!”

박찬봉 사무처장은 “전통시장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을 우리 사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상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민주평통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하면 통일 운동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통이라는 전국적인 통일운동조직과 경제 시장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마켓타운 상인분들이 마음을 모아 남남통일대박을 먼저 만들고, 이 힘을 통해 남북통일대박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임수빈 부전농산물새벽시장 회장은 “아버님이 증구 자문위원이셨고 실항민이셔서 통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며 “어떻게 하면 함께 협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마침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다행이고, 마켓타운 상인회는 민주평통의 통일운동에 적극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손원호 부전시장 회장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우리는 시장상인들과 대화를 해서 통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해시켜나갈 것”이라며 “이런 좌담회가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통일대박을 외치는 통일사랑방 좌담회 참가자들

##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도 보고, 주전부리 나눠먹으며 이야기꽃 피워

통일사랑방 좌담을 마친 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문위원들과 함께 부전마켓타운 장보기에 나섰다. 사무처 임직원들과 자문위원들은 길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우리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서는 멘토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70여 명을 초청해 함께 장보기체험 멘토링을 실시했다. 부산 친구 김영복 자문위원과 함께 온 한말숙(가명) 씨는 “멘토선생님과 다른 자문위원님들이 장바구니에 이것 저것 사서 채워넣어주셨다”면서 “오늘 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김영복 자문위원은 “우연히 민주평통 행사에서 만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말숙씨의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며 “과일이나 챙겨주고 이야기나 나눌 뿐 물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못줘도 심적으로 정이 들어 이제는 한 집 식구 같다”며 흐뭇한 ‘아빠미소’를 보여주었다.





## 민주평통, 在일본 탈북민 초청 간담회 개최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 한가득 쏟아내

“그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어느 땅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알차게 여물거나, 구실을 못하게 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못 떨어진 씨앗인 거지요 (在일본 탈북민의 말 중).”

민주평통은 11월 26일(수) 세종호텔에서 '在일본 탈북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키노시타 키미가쓰(가명) 관동탈북자협력회 회장 등 在일본 탈북민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일본의 '탈북자 지원민단센터(센터장 여건이)'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在일본 탈북민들은 30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서울시내 명소와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 통일안보현장을 둘러봤다. 여건이 센터장 등 일본 '탈북자 지원 민단센터' 관계자 인터뷰와 在일본 탈북민들의 사연을 함께 게재해 본다.

### 여건이 센터장 “탈북민 누구보다 통일 원해”

여건이 재일한국민단(이하 민단) 부단장은 11년 전 탈북자지원민단센터(이하 탈북자센터)를 설립해 지금까지 센터장을 맡고 있다. 현재 일본내 탈북민은 165명(일본정부 추정 200여 명)으로, 탈북자센터에서는 이들에게 정착지원금 지원을 비롯해 탈북자교류, 일본어 교육지도, 각종 수속 상담 및 신청협조, 주택 및 취직 상담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94년 북한에 식량문제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했고, 당시 일본 내에도 탈북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관련 단체에서 중국에 남은 잔류고아같은 비극이 또다시 생겨나면 안된다며 도움을 요청했지요.”

여건이 센터장은 민단 단장에게 탈북자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제안서를 써서 요청을 했고, 특히 반대가 심한 고문들을 설득해야 했다. 또한 조총련 측의 비난이 거센 데다 국적 문제도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로 입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탈북자지원센터가 설립됐고, 현재 센터에서는 일본 내 탈북민이 자립·정착할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건이 민단 부회장



하지만 일본 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 무국적자가 많아 재류자격상의 문제가 있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 일본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인식 부족, 일본내 탈북민 지원정책의 부재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 즉 일본어를 모르는 젊은 세대의 경우 은둔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와함께 현재 모금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여건이 센터장은 이번 한국방문과 관련해 "일본에도 탈북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탈북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허맹도 일본동부협의회 회장

한편 허맹도 일본동부협의회 회장(민단 상임고문)은 "일본을 택했던 한국을 택했던 좀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왔고 한국인의 피를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방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민주평통 측에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어서 뜻깊은 방문여행이 이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키노시타 키미가쥬(가명) 관동탈북자협력회 회장은 "일본에 온 것은 오직 40년간 빼앗긴 자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바람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과 몇년 전에 헤어진 자식, 친척, 부모와의 이산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크다"며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차츰 통일에 대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 在일본 탈북민의 사연들 ]

## “산 사람은 산 사람이라지만 매일 악몽을 꾸니다”

초청간담회 다음 날, 일본 탈북민들을 만나 자세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 세 시간 내내 눈물을 닦아내며 들어야 했는데, D씨는 "일본사람 앞에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왜 통일이 하루 빨리 되어야 하는 지 마음으로 알아주는 한국인들과 이야기 할 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해들은 이야기 가운데 너무 자극적인 내용을 빼고 간추려 전한다.

### A씨 “통일되면 만나자는 편지 주고 돌아선 남편, 그게 마지막”

부모님은 일본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학연구학사였는데, 아버지는 연안파 숙청당시 이름을 바꿔 도망치다 붙잡혀서 생사를 모르고, 아버지를 기다리다 치치 중국에서 북한으로 온 엄마와 저는 탄광으로 보내졌어요. 15살까지 반토굴집에서 살았지요. 나중에 아빠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옥에서 함께 계셨던 분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딸(A씨)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저를 7년간 따라다녔는데, 제가 출신성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지를 벗을(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저와 결혼을 했어요.





제 아버지는 숙청되었고, 엄마도 간첩연루자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남편 승진길이 막혔지요. 제겐 아들이 2명 있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을 결심했어요. 남편이 불잡았지만 저는 가야겠다고 했고, 두만강까지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줬지만 남편은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남편, 아빠구실을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살아있다면,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애들을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는데 두만강 근처에서 체포됐어요. 남편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당했다고 들어요.



탈북 과정에서 몽골 사막을 넘다가 군인들에게 불잡혔어요. 300발 넘는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큰 아들 손에 남은 돈을 전부 쥐어준 뒤 동생이랑 같이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뛰라고 했어요. 하지만 둘째는 저와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같이 불잡혀서 만주리 감옥에 갔는데 그 벽에 피로 ‘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어’라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한 아기는 새까맣게 얼어 죽었고, 어린아이 하나는 공포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으로 왔고 무사히 큰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어요.

### B씨 “판문점 보고 왔는데, 헤어진 가족들 생각 더욱 간절”



일본에 살다가 13살에 부모님, 동생이랑 같이 북한으로 갔어요. 이런 한심한 나라가 있는가 생각했고 심한 고생을 했지요. 딸이 셋 있는데, 막내딸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과 결혼을 했고, 저도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첫째 딸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겁이 난다며 못 나왔고 둘째 딸은 중국에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남동생 두 명은 탈북하다 불잡혀서 다 죽었고요. 누구나 이런 사연들을 가슴 속에 한두 가지 씌은 품고 있겠지요. 일본에 도착한 후 민단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줘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네요.

일본에 와서 2년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그거라도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조국통일이 빨리 돼야 해요. 나이가 있다보니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돈을 보내는 것도 일시적인 것일 뿐 살 길은 통일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와서 진심으로 통일을 열망하고 영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등하게 대해줬고요. 통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기뻐요. 이번에 둘러 본 곳 중에서는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같은 땅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사는 게 싫었지요. 헤어진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요.

### C씨 “남동생과 엄마의 죽음, 죄책감 떨칠 수 없어”

아이들과 함께 탈북했는데 딸들은 일본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자마자 생활보호도 받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똑똑하게 정착해서 살아요. 다만, 북한에 계셨던 친정어머니와 남동생이 너무 불쌍하게 죽어서 매일 악몽을 꾸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엄마가 계속 굶다가 공동수도에 물을 길러 나갔는데 쓰러지신 뒤 돌아가셨대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만 찾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뒤엔 남동생마저 죽어서 엄마 묘를 돌볼 사람도 없어졌어요. 남동생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200리 길을 걸어서 고모에게 갔어요. 도와달라고 했지만 없는 살림이라 남동생에게 빵 하나와, 무 하나 쥐어줬대요. 남동생은 그걸 갖고 오다가 길바닥에서 일어 죽었어요. 누나에게 소식을 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친척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이후부터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사람이라며 딸들이 위로해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죽었을까, 그 죄책감만은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D씨 “통일밖에 없죠.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자주 다녀오다 보니 감시가 붙어서 막내 여동생을 한 달간 대신 중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됐고 그 내용을 저에게 편지로 썼어요. 하지만 체신국에 보위부 스파이가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북한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다 잡혀 들어갔지요. 시가 아니라 도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1호 사건(체제비판, 김씨 일가 비판)’이라고 했지요. 1호 사건은 아무리 많은 와이로를 고여도(뇌물을 쥐도) 안돼요.



면회를 하려고 찾아갔고 여러 가지 물건을 장마당에서 사갔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세 번째 갔을 땐 이미 처형된 뒤였습니다. 1호 사건은 재판도, 공개처형도 많습시다. 울고 있는 남편과 조카들에게 제사를 지내 달라고 말해야 했지요. 조카 한 명도 한국 TV를 봤다는 이유로 교화소에서 3년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98%가 이 체제를 원하지 않아요. 통일 밖에 없죠. 당장 내일 된다고는 못해도 아주 먼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주요뉴스

### 현경대 수석부위원장 및 운영위원, 23일 해병대 장병 위문



민주평통은 12월 23일(화)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현경대 수석부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은 지난해 육군 제3사단 방문에 이어, 올해에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국군 장병들의 한 해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사단 본부와 장갑차 부대를 방문해 안보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남한 남성, 탈북 여성의 만남 '2014 남남북녀 통일데이트' 화제 만발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는 강원 영월군 동강시스타와 공동으로 '2014남남북녀 통일데이트' 행사를 11월 29~30일 이틀간 진행했다. 흥기를 놓친 영월 인근지역 남성 36명과 탈북 여성 32명이 함께 맞선을 본 것. 이날 남남북녀 통일데이트에서는 먼저 '연애학 개론 특강'을 경청한 후 남측 남성과 탈북 여성이 함께하는 '만남의 시간'과 '그리운 이와 별밤데이트'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만남의 시간'에는 장기자랑과 즉석 커플 맺기 등 즐거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두 번째 날에는 영월 한반도지형을 방문해 하나된 통일 조국을 꿈꾸며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 독일 베를린 장벽 길 걸으며 평화통일 기원



북유럽협의회 베를린분회는 12월 10일 교민들과 함께 베를린 분단 중앙 추모지가 있는 베르나우어 슈트라세에서 '한반도 통일 기원 베를린 장벽 길 걷기 운동'을 개최했다. 이곳은 원형의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는 장소로, 행사 참가자들은 베를린 장벽 야외 기념관에서 장벽 공원, 보언홀름어 슈트라세로 이어지는 약 3.7km구간을 두 시간 가량 걸으면서 독일통일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졌다.

## 전국 청년위원장 및 통일동아리 대표 합동회의 열려







민주평통은 12월 5~6일 2014년 청년위원회 주관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청년 브랜드 사업 개발 모색을 위해 '청년위원장 및 통일동아리 대표 합동 회의'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 박찬봉 사무처장은 "민족통일국가 완성을 위해 독립운동 못지않게 통일운동이 중요하며, 민주화 과정처럼 젊은 세대가 새로운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도 통일기반 구축 유공 자문위원 국민훈·포장 수여식 개최

민주평통은 12월 19일(금) 백범김구기념관(용산구 효창동 소재)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공 자문위원 45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이번 '국민훈·포장 수여식'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 7명, 동백장 9명, 목련장 12명, 석류장 14명, 국민포장 3명을 비롯해 지역에서 통일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34개 지역협의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을 받았다.



영예의 수상 유공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 국민훈장 모란장(7명)

김원국(서울 영등포구 협의회장), 이명숙(부산 사상구 협의회장), 류정길(대구 수성구 협의회장), 강대인(경기 화성시 협의회장), 박우선(경북 봉화군 협의회장), 이숙진(호주 협의회장), 림관현(운영위원)

### 국민훈장 동백장(9명)

김상희(서울 중랑구 협의회장), 이영수(서울 강남구 자문위원), 김유환(부산 진구 협의회장), 손창수(대구 달서구 협의회장), 김소림(인천 지역회의 간사), 심준택(경기 김포시 간사), 최재경(강원 홍천군 협의회장), 이창효(경남 사천시 협의회장), 박종철(상임위원)

### 국민훈장 목련장(12명)

남궁금순(서울 양천구협의회 자문위원), 양재곤(서울 강동구지회장), 이재창(서울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백용해(부산 동구 협의회장), 김봉재(광주 서구 협의회장), 이진용(울산 중구 협의회장), 안민규(경기 동두천 협의회장), 신길수(충북 청주시 지회장), 이흥근(충남 당진시 협의회장), 김동인(전남 고흥군 협의회장), 정경애(미국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 조연빈(동남아 북부협의회 자문위원)



## 국민훈장 석류장(14명)

신상균(서울 동대문구 협의회장), 노영혜(서울 중구협의회 자문위원), 김두현(인천 계양구협의회 자문위원), 홍순평(경기 양주시 협의회장), 이상호(경기 안양시 협의회장), 김중호(강원 속초시 협의회장), 이병남(충북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진명희(충남 예산군 간사), 고강영 (전북 장수군 협의회장), 김정채(경북 포항시 협의회장), 최홍백(경남 남해군 협의회장), 안영호(미국 달러스 협의회장), 이세락(상임위원), 신원영(상임위원)

## 국민포장(3명)

오병익(경기 포천시 협의회장), 오종순(전남 나주시 협의회장), 김기만(상임위원)

## 우수협의회(34개협의회)

서울(중구, 은평구, 강남구), 부산(남구, 해운대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광주(남구), 울산(동구), 경기(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하남시), 강원(속초시, 양구군, 평창군), 충북(증평군, 진천군), 충남(금산군, 청양군), 전북(남원시, 정읍시), 전남(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경북(청도군, 칠곡군), 경남(양산시, 함안군), 해외(상하이, 중앙아시아, 중미카리브, 북유럽)

##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부산 동래구협의회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경기 김포시협의회

부산 동래구협의회는 11월 20일 동래문화회관소극장에서 '2014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12월에 들어서는 4일 제주 서귀포시협의회가 서귀포경찰서 대강당에서 2014 찾아가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8일에는 경기 김포시협의회가 김포시 구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14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또한 경북 예천군협의회는 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 및 평화통일 글짓기 시상식'을 열었다.



▲ 경북 예천군협의회

## 통일미래세대 육성



▲ 전남 완도군협의회



▲ 충북 충주시협의회



▲ 대구 달성군협의회





진남 원도군협의회는 11월 19일 원도고등학교, 원도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강연회'를 열었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는 11월 24일 국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다. 11월 25일에는 대구 달성군협의회가 달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해 해군부대 견학 및 병영교육'을 다녀왔으며, 같은 날 충남 천안시협의회는 천안고등학교와 함께 '청소년 통일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충남 천안시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는 11월 28일 용산전쟁기념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홍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통일역사탐방'을 다녀왔으며 부산 사상구협의회는 11월 29일 롯데리아 주례점에서 어깨동무하기 멘티멘토를 대상으로 '2014년 평화 통일 글짓기' 행사를 열었다.

▼ 부산 사상구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 부산 연제구협의회



▲ 전남 장성군협의회



▲ 충남 아산시협의회

12월 들어서는 2일 부산 연제구협의회가 이사벨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고, 전남 장성군협의회는 3일 장성 삼서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또한 충남 아산시협의회는 4일 시민체육관에서 관내 8개 고3 예비사회인 청소년들과 함께 '제6회 도전 통일퀴즈(골든벨)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대구 중구협의회도 경주중학교에서 '2014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 대구 중구협의회



▲ 대구 중구협의회

▲ 강원 속초시협의회

▼ 경기 고양시협의회





12월 5일에는 대구 중구협의회가 대구제일중학교에서 '2014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열었으며 강원 속초시협의회도 속초고등학교 화랑관에서 '통일강연회'를 진행했다. 8일에는 경기 고양시협의회가 목암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실시했으며 경기 시흥시협의회도 장곡고등학교 방송실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 ▶



▲ 경기 화성시협의회



▲ 충남 공주시협의회



▲ 경기 용인시협의회

이어 10일에는 경기 화성시협의회가 병점중학교 다목적실에서 '청소년 1일 통일교실'을 열었으며 충남 공주시협의회도 금성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고3 학생들과 함께 '평화통일기원 강연회'를 열었다. 한편 경기 용인시협의회도 이날 백암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고 3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참여교육'을 실시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전남 영암군협의회



◀ 부산 사하구협의회



경남 영암군협의회는 11월 21일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경찰관계자 등과 함께 수덕사, 아산 현충사, 천안 독립기념관 등을 다녀왔으며 부산 사하구협의회는 24일 장대현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문위원, 관내 탈북청소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기 멘티 탈북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열었다.



▲ 제주 지역회의



▲ 경기 이천시협의회





제주 지역회의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하나가족(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불국사, 석굴암, 신라역사과학관 등 '경주 일대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으며 2일에는 경기 이천시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청와대를 견학하고 용산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충북 청주시협의회는 2일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집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집을 직접 찾아 위로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 충북 청주시협의회



▲ 경북 구미시협의회



▲ 전북 익산시협의회

▼ 전남 영광군협의회



▼ 충북 옥천군협의회

경북 구미시협의회는 12월 7일 구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북한 이탈주민, 자문위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를 실시했으며 전북 익산시협의회는 8일 북한이탈청소년 가족들을 초청해 멘토 멘티간의 만남을 갖고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어 9일에는 전남 영광군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여성 분과위원회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 숯밥 나누기' 행사를 열었으며 11일에는 충북 옥천군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동일문화 활동



▲ 전남 진도군협의회



▲ 전남 목포시협의회

▼ 부산 강서구협의회

전남 진도군협의회는 11월 18일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과 우리나라 태극기를 손으로 직접 그리며, 그 의미와 역사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 목포시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22~23일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도 문화탐방 및 선상워크숍을 다녀왔다. 부산 강서구협의회는 11월 26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자문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양백두한라 예술단 초청 2014 평화통일한마당'을 개최했다. 울산 지역회의는 11월 29일 동백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 울산 지역회의







▲ 인천 계양구협의회



▲ 강원 양양군협의회



▲ 전북 지역회의

인천 계양구협의회는 12월 2일 계양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관련 도서를 지원했으며 강원 양양군협의회는 3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지역단체장, 자문위원, 양양군민들을 초청해 '평양민속예술단초청공연'을 열었다. 전북 지역회의는 12월 5일 무주리조트에서 전북·부산 지역 협의회의 간부위원들과 함께 '제9회 전북·부산지역회의 자매결연 및 화합교류회의'를 개최했다.

## 지역 봉사활동

### ▼ 경남 함안군협의회



▲ 경북 성주군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 서울 서대문구협의회

경남 함안군협의회는 11월 6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식당에서 대행기관장,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경찰서장 등과 함께 '이웃사랑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가졌으며 서울 서대문구협의회도 28일 여성분과위원회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경북 성주군협의회는 12월 5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민주평통 행복나눔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으며, 경북 칠곡군협의회도 9일 북한이탈주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누주는 행사를 가졌다.



▲ 충북 영동군협의회



▲ 충남 논산시협의회

충북 영동군협의회는 12월 4일 어려운 이웃의 사회복지 자원 마련을 위해 해마다 열리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행사에 참여해 성금을 전달했다. 충남 논산시협의회는 9일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에서 임원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빵 1,000여 개를 만들어 관내 정신요양시설 3곳에 음료와 함께 전달했다. 전북 전주시협의회는 12월 11일 전주연탄은행을 통해 전주지역 독거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 연탄 4,000장을 전달하고, 노송동 지역을 직접 찾아가 '사랑의 연탄배달부'로 나눔을 실천했다.



▲ 전북 전주시협의회



## 해외 지역 통일활동



미국 로스앤젤레스협의회는 12월 9일 옥스포드 팰레스호텔에서 탈북동포 가정을 초대해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는 12월 6일 칭다오홀리데이인호텔 1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대학교유학생, 한국학교 중고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에 하고 싶은 통일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 토론토협의회는 11월 25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토론토총영사관과 함께 '세계 최초 불후의 명강연' 행사를 열었다. '캐나다 사회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 중국 및 북한문제 전문가인 찰스 버튼 브릭대학교 교수가 통일강연을 실시했고, 2부에서는 '우수 통일 명강사 선발대회'가 진행됐다.

## 독자들이 뽑은 'e-행복한 통일' 최고의 기사

올해 'e-행복한통일'은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 실시로 '먼저온 통일'섹션을 신설했고,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다양한 IT기기에 적용되는 반응형 UI를 선보이는 등 독자분들이 지적하신 불편사항들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는 'e-행복한 통일'이 되겠습니다.

2014년의 끝, 2015년의 시작을 즈음하여, 응원 댓글로 본 최고의 기사를 섹션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포커스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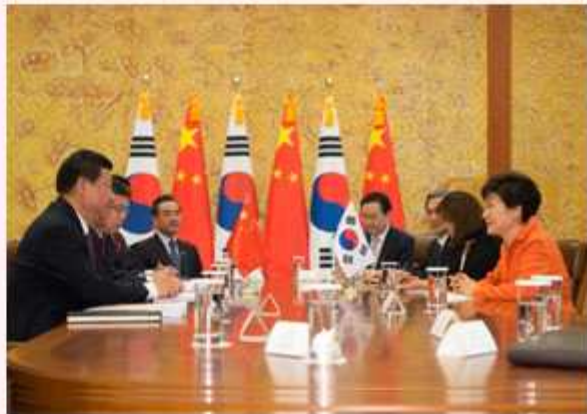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바로가기](#)

내부에서 통일에 대해 인지하고 준비하여도 외부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은 약간일지라도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차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일반 언론사와는 다른 심도 있는 논평 감사드립니다. 늘 관심을 갖고 기사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동북아 정세중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문제 일본문제 등 통합적인 시각을 자세히 설명해준 점이 눈길을 끌며,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군요. 군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긴밀한 협조를 해야하는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온듯합니다 ^^ 달라져가는 중국과의 관계가 잘돼서 통일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내가 생각하는 통일 그 후

웹툰과 동영상을 활용해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해보았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수업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꾸준히 웹진을 보고 수업에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웹툰이라서 더 이해하기도 쉽고, 만화도 재미나고 ~ 이해하기도 쉬워서 좋아요! 통일 관련 법이나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웹툰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들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통일 대한민국' 꿈이 이루어졌다! 진정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으면서 온 몸에 소름이 쭈욱... 올라오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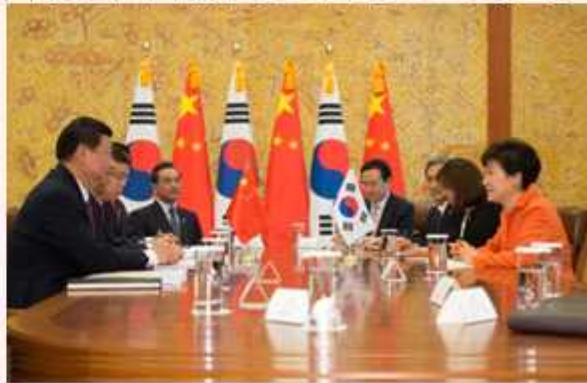


투데이남북 Best

북한 동요, 유머의 웃을 입고 스며들다

[바로가기](#)

남한이고 북한이고 아이들이 동요부르는 모습은 다 똑같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동요는 다소 코믹적인 분위기 많이 섞여있는 듯하여 귀에 쭈뼛 들어와 재미 있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요를 남북문제 일본문제 등 통합적인 시각을 자세히 설명해준 점이 눈길을 끌며,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군요. 군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긴밀한 협조를 해야하는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온듯합니다 ^^ 달라져가는 중국과의 관계가 잘돼서 통일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내가 생각하는 통일 그 후

웹툰과 동영상을 활용해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해보았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수업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꾸준히 웹진을 보고 수업에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웹툰이라서 더 이해하기도 쉽고, 만화도 재미나고 ~ 이해하기도 쉬워서 좋아요! 통일 관련 법이나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웹툰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들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통일 대한민국' 꿈이 이루어졌다! 진정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으면서 온 몸에 소름이 쭉뚫... 올라오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투데이남북 Best

북한 동요, 유머의 웃을 입고 스며들다

[바로가기](#)

남한이고 북한이고 아이들이 동요부르는 모습은 다 똑같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동요는 다소 코믹적인 분위기 많이 섞여있는 듯하여 귀에 쫄쫄 들어와 재미 있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요를 우리에게 친근한 노래로 그 생각을 되살려 주면 오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서 온 국민이 더욱 기억을 잘 하게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면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또한 통일은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국가, ON 캠페인으로 통일의 스위치 켜요' 편 기사가 마음에 들어 평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승철 팬으로서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이런 통일에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분 좋고 팬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통일송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앞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소식, 통일을 위한 밝은 미래가 있는 소식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 또다른 시선 Best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섬이 아닌 대륙이 되는 거잖아요” 볼간 타미르



[바로가기](#)



'또 다른 시선'이라는 기사에서 통일이 되면 섬이 아니라 대륙이 된다는 구절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에서 다른 나라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통일이 되면 더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다 알차고, 통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는 내용으로 전문적으로, 시사적으로 때론 재미있게 표현되어서 재밌게 읽는 웹진이다. 이번호에는 특히 '희망을 꿈꾸다(또다른 시선)'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독도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도 진짜 대한민국 국민처럼 독도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고맙고 감동적이었다.



###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Best

돈 대신 종잇조각? '울자울자' 하지 마세요!

[바로가기](#)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읽을 때마다 재미도 있으면서 가슴도 아파지는것 같네요. 통일된 하나의 나라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북한사람들이 겪는 실제 삶을 실감나게 느꼈고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를 퍼뜨려야 북한사람들의 고초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충우돌 남한적응기를 보며 우리가 당연하고 또 그냥 지내왔던 것들이 새롭게 남한생활을 시작하신 새터민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또 힘든 부분이었던 것과 우리의 삶을 한번쯤 돌아보게 된 두가지 면에서 좋았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저도 가끔이지만 지금도 그런답니다. 뭐시여?! 아재요! 그러문 안되유!

### 길 위의 풍경 Best

[바로가기](#)

계절의 틈바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통영)



통영의 물색, 파도소리, 초목. 그 모든 자연이 소리로 들렸다는 작곡가 '윤이상 기념공원'이나 작고하기 까지 고향, 통영을 지켰던 화가 '전혁림 미술관', 꽃 같은 시인 '김춘수 유품전시관', 생전에 유치환이



즐거 걸었던 골목이라 이름 붙여진 '청마거리', 소설가 '박경리 기념관' 등 학창시절 흠모했던 예술가들의 발자취도 이곳 통영에서 만날 수 있다. 이충무공 말고도 작가나 시인을 만난다는 건 재미있는 일인 거 같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네요. 눈으로 보는 것보단 역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일출, 일몰도 보고싶고 마음을 힐링하고 돌아오고 싶어지네요.



## 통일레시피 Best

시원한 동치미 국물과 옥수수면이 만난 강랑국수

[바로가기](#)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만족성을 나타내 주는 것 같다. 또 음식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이 들어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 내려오셔서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배운 함경도식 만둣국과 빈대떡을 명절 때마다 만드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는 맛볼 수 없는 맛. 음식이 달라지는만큼 동포들과 우리의 갭이 벌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강랑국수를 대접해봐야겠다.

강랑국수!! 옥수수가루랑 밀가루랑 섞어서 면 만들어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을것 같아요 이번주 일요일날 재료 사서 따라 만들어볼라구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강랑국수 먹음직 스텝네요. 통일되면 문화차이가 많겠지만 새로운 문화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 공감을 만나다 Best

'통일준비됐나요' 당선작



[바로가기](#)

통일 후 만난 부모처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될 것



'통일 준비됐나요' 당선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그 과정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역경이 있기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대박통일을 위한 긴 여정에 지지를 보냅니다.

'공감을 나누다' '통일 준비됐나요' 당선작. 통일 후 내가 통일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기사네요. 통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댓글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한지만, 역시 제일 좋은 응원글은 '기사를 보면서 남한과 북한이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와 같이, 웹진 기사를 통해 통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 '또다른 시선'을 가진 분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올해 e-행복한 통일이 만난 사람들. 스물 네 명(팀) 모두가 다 기억에 남지만 지면 관계상 몇몇 분들만 다시 추억해봅니다.

##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게스트 하우스를 기부, 운영하는 (사)공감 이종우·김상아·허영철 씨, 남북한어린이야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사람들, 반크 박기태 단장, 북한이탈주민 돕는 개그맨 이승환, 산악인 엄홍길 대장, 탈북청소년 이야기를 동화로 쓴 정길연 작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주제로 한 뮤지컬 주인공 강효성 씨, 가수 이승철씨, 북한인권동아리 '투포원'팀과 연세대학교 프로젝트 팀 에덴, 탈북복서 최현미 씨, 함태선 대한전통문화예술협회장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 (사)공감 사람들

[바로가기](#)

카페 공감과 공감게스트하우스는 (사)공감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공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의료·취업·대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이들의 남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사)공감을 이끌고 있는 허영철 대구하나센터 소장과 이종우 원장(비노기과 개원 의사), 김성아 공감 이사(전 동아대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 학생동아리 투표원과 에덴

[바로가기\(투표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북한인권동아리 투표원은 매주 토요일 탈북청소년학생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중국에 가서 만난 탈북 소녀 옥선이를 위해 모금활동을 벌여 그녀를 남한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에덴'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풀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대학생 연합 동아리 '인액터스 코리아'의 연세대학교 소속 프로젝트 팀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관련 프로젝트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가기\(에덴\)](#)



## ♥ 남북한어린이야구단 '논현돌핀스'

[바로가기](#)

인천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남북한어린이야구단 '논현돌핀스'는 아이들의 야구를 통해 부모들 간 친목과 교류를 유도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든든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소통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수별로 남한 어린이 10명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 잘 하진 못해도 남북 아이들 구분 없이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통일을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 ❤ 산악인 엄홍길 대장

[바로가기](#)

통일대장정을 통해 올해 11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고성 통일 전망대를 시작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휴전선 155마일을 도보로 완주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 통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며 '통일은 힘들어도 극복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 대장님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백두대간을 종주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또다른 시선'의 주인공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행복한통일에서는 한국의 빈민구제와 한국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하 안토니오 몬시놀 신부를 비롯해 소신 있는 개념 발언으로 한국 사랑을 표현했던 방송인 샘 해밍턴,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리키 김, 구잘 투르수노바 그리고 남북한 문제와 통일에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해 온 자코, 마이클 램브라우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국악을 사랑하는 조세린 클락 교수, 이산가족 이야기를 영화에 담은 정승현 감독과 알바니아 유학생 아메타이 알론소, 불간 타미르를 통해 '제 3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 ❤ 하 안토니오 몬시놀

[바로가기](#)

56년 전 부산에 와서 빈민구제와 학교·조산원 설립 등 한국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달동네의 성자' 하 안토니오 몬시놀 신부. 건강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직접 들려주시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통일에 이르는 '천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바로가기](#)

KBS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얼굴을 알린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나는 소신 있는 개념발언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이블과 공중파를 오가며 활발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2008년부터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일하고 있어요. 또한 다문화연구연대 홍보대사, 4대 사회약 근절 홍보대사, 한국재능기부협회 홍보대사 등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한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 ♥ 조슬린 클락 교수

[바로가기](#)



우리 국악의 독창성에 매료되어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조슬린 클락 교수는 현재 배재대학교에서 한국학생들을 가르치며,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 가야금 병창의 역사와 연주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가야금 산조로 전수자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악 전도사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 ♥ 방송인 리키 김

[바로가기](#)

한심한 외모와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통해 활약 중인 방송인 리키 김은 뮤지컬 배우 류승주 씨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아들바보'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열혈 아빠의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을 사랑해 당연히 한국 역시 사랑하게 됐다는 리키 김의 활약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 통일 덕담 한마디 EVENT

북한이탈주민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 을미년 한해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친구들에게,  
통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에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덕담을 남겨주세요~


- 응모기간** 2014.12.29 ~ 2015.01.23
-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댓글로 작성해주세요.
- 당첨자수** 5명
-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2만원권

- 심사는 내부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 응모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의 경우 저작권이 본 기관에 귀속됩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웹진 즐겨찾기' 인증샷

'e-행복한 통일' 웹진을 즐겨찾기 하신 후,   
즐겨찾기 한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  
2015년도에도 'e-행복한 통일' 즐겨찾기로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응모기간** 2014.12.29 ~ 2015.01.23

**응모방법** <파일첨부로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서 응모해주세요.

**당첨자수** 20명 추천

**시상내역**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응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8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파일첨부  
응모



# 통일대박

## 운수대통 금은별을 찾아라

웹진 기사 곳곳에 **금색별 1개, 은색별 5개**가 숨어있어요~  
금은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찾았다'는 문구가 뜰 거예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별의 위치를 찾으셨다면,  
아래 비밀댓글에 남겨주세요.



**금색별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있어요~**

금색별을 포함해서 **총 6개**를 찾으신 분께는  
파리바게트 호두파운드케익을,  
금색별은 찾지 못했지만  
은색별 **5개**를 찾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한 잔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2014.12.29 ~ 2015.01.23

- 응모방법**
1. 기사를 읽고 별을 찾아 별에 마우스를 올리면 '찾았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2. 총 6개의 별을 찾은 후, 별을 클릭하면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3. 아래에 비밀댓글로 별의 위치를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금색1개 + 은색 5개 (3명 추첨)

은색 5개 (20명 추첨)

**시상내역** 호두 파운드케익 / 스타벅스 카페라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 '나만의 통일NOTE'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vehm84@naver.com	전향미
2	**1982ko@naver.com	고규황
3	**mk28@hanmail.net	이미경

### ♥ '통일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fud1345@naver.com	발렉스트라
2	**arsmaniac@hanmail.net	Bears
3	**mpidsoul@hanmail.net	굿바이2014
4	**nhan79@gmail.com	새댁
5	**rwjddms84@naver.com	립글로스
6	**sdl724@naver.com	공알기린
7	**pdance1@naver.com	아랍왕자
8	**mjyy@nate.com	새침떼기
9	**lwoo@naver.com	이일우
10	**m0618@hanmail.net	밀가루인형
11	**heel7272@hanmail.net	선효정
12	**emiermanu8909@nate.com	초록색
13	**y4421@hanmail.net	나라사랑
14	**h2293@naver.com	터줏대감

15	**y17621@hanmail.net	영아야
16	**qc100489@naver.com	xyqc100489
17	**kicute@naver.com	미스에버
18	**ltima@hanmail.net	표정이
19	**ndymeet@naver.com	캔디캔디
20	**w8206@naver.com	벨루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lip5301@naver.com	010 - **** - 3070
2	**e6956@hanmail.net	010 - **** - 6161
3	**s0005@naver.com	010 - **** - 5120
4	**mk28@hanmail.net	010 - **** - 6265
5	**s3720@hanmail.net	010 - **** - 3726
6	**kurairo83@nate.com	010 - **** - 8798
7	**128good@naver.com	010 - **** - 4705
8	**kdrn09@hanmail.net	010 - **** - 2740
9	**njinhj08@hanmail.net	010 - **** - 1465
10	**t4696@hanmail.net	010 - **** - 9123
11	**miz-zz@Hanmai.net	010 - **** - 3883
12	**cgg@hanmail.net	010 - **** - 6017
7	**pdañcēT@naver.com	아랍왕자
8	**mjyy@nate.com	새침떼기
9	**lwoo@naver.com	이일우
10	**m0618@hanmail.net	밀가루인형
11	**heel7272@hanmail.net	선효정
12	**emiermanu8909@nate.com	초록색
13	**y4421@hanmail.net	나라사랑
14	**h2293@naver.com	터줏대감
15	**y17621@hanmail.net	영아야
16	**qc100489@naver.com	xyqc100489



17	**kicute@naver.com	미스에버
18	**ltima@hanmail.net	표정이
19	**ndymeet@naver.com	캔디캔디
20	**w8206@naver.com	벨루티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lip5301@naver.com	010 - **** - 3070
2	**e6956@hanmail.net	010 - **** - 6161
3	**s0005@naver.com	010 - **** - 5120
4	**mk28@hanmail.net	010 - **** - 6265
5	**s3720@hanmail.net	010 - **** - 3726
6	**kurairo83@nate.com	010 - **** - 8798
7	**128good@naver.com	010 - **** - 4705
8	**kdrn09@hanmail.net	010 - **** - 2740
9	**njinhj08@hanmail.net	010 - **** - 1465
10	**t4696@hanmail.net	010 - **** - 9123
11	**miz-zz@Hanmai.net	010 - **** - 3883
12	**cgg@hanmail.net	010 - **** - 6017
13	**zmo7979@naver.com	010 - **** - 7160
14	**monitering@naver.com	010 - **** - 7160
15	**llia17@hanmail.net	010 - **** - 3627
16	**euj99@daum.net	010 - **** - 9273
17	**unkoo@hanmail.net	010 - **** - 3142
18	**1982ko@naver.com	010 - **** - 9805
19	**vehm84@naver.com	010 - **** - 7091
20	**at4773@naver.com	010 - **** - 0915

21	**oungjaeone@hanmail.net	010 - **** - 9904
22	**lwoo@naver.com	010 - **** - 7044
23	**6491@naver.com	010 - **** - 7195
24	**ohee10@naver.com	018 - *** - 4136
25	**kk4@hanafos.com	010 - **** - 5912
26	**ster@naver.com	010 - **** - 4850
27	**sporter@hanmail.net	010 - **** - 1778
28	**rhaps00@hanmail.net	010 - **** - 3995
29	**hwamail@hanmail.net	010 - **** - 8964
30	**ereyetg@naver.com	010 - **** - 8473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